

사설

안전은 교육이 아닌 연습이다

안타까움을 지나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참사가 발생한지도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소를 잃을까? 외양간을 잘 못 고쳐서 일까? 아니면 소도둑을 막지 못하기 때문일까?

정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를 찾고 법을 강화하고 제정하는 데 시간을 소비한다. 게다가 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소 주인은 소를 잃어 슬퍼 죽겠는데 외양간까지 고쳐야 한다. 외양간을 고칠 책임은 소 주인에게 있다. 정부는 소도둑을 잡고 소도둑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 책임이 있다. 소 주인은 소도 잃었는데 외양간을 고치는 데도 돈을 쓴다. 그러나 정부는 소도둑을 잡고 막는데 필요한 예산이 없다고 견고한 외양간 설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소 주인이 여기에 맞게 외양간을 고치고 관리하는지 검사하고 잘 못 고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잘 못 고친 주인에게 벌을 주는 일에 초점을 둔다. 소 주인은 처벌 받는 게 두려워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고 산다.

우리 대학교도 마찬가지다. 대학교에서 가장 안전에 민감한 부분은 학생들의 행사이며, 연구실 안전이다. 대학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반기별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일지를 제출하도록 한다. 교육훈련은 관련 전문가 및 안전분야 교수 경력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과거에 없었던 법이 생기고 이를 지키려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법을 연구하고 법을 규제하는 중앙 조직에는 인력과 예산이 늘었는지 모르나 대학교는 추가적인 예산이 나 인력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대신 외양간을 튼튼하게 유지하라는 책임만 늘 뿐이다.

대학교 안전교육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물론 최종 책임자는 총장이다. 각 연구실의 책임자는 해당 교수이다. 그러나 과연 연구실의 책임교수는 안전분야 전문가인가? 서류상으로는 전문가이거나 전문가이어야 한다. 교수가 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의 안전을 지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안전 교육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운전면허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고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은 교육이 아닌 연습이고 훈련이기에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야 한다. 많은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따라서 해결된다. 이것이 교육에서의 핵심역량이다. 가장 중요한 안전 훈련을 맞춤형으로 익힌다면 다른 안전사고를 막는 최소역량이 될 것이다. 제주대학교 내에는 형태가 다른 많은 건물이 있고, 비상구, 소화기, 소화전의 위치도 다르다. 평소애 자주 본 듯하지만 비상시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대학교만의 맞춤형안전교육 전략과 체계를 만들고, 인문·사회계열, 자연·의학계열에 맞는, 그리고 건물에 적합한 안전 연습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제주대학교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실질적인 맞춤형 안전교육과 연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학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관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공학교육인증제 도입 8년, 학생도 교수도 ‘불만’

가산점 부여하는 기업 줄어 취업에 큰 도움 안돼

공과대학 교육을 선진화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도입된 공학교육인증제(ABEEK, 공학인증)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노력에 비해 실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학교육인증제는 인증된 프로그램을 공부한 졸업생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학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우수한 공학기술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기업들에게 인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안기중(컴퓨터공학과 교수) 공학인증센터장은 “학생들은 공학인증을 통해 수준 높은 공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삼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공학교육인증제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준다”고 말했다. 또 “인증 받은 학생들은 국제적 공학인증 기구 WA(워싱턴 어코드)의 인증을 받아 다른 외국대학의 졸업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교수와 학생들이 인증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고성택(전자공학과) 교수는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가는 학생들에겐 좋은 제도이지만 아닌 경우는 필

요가 없다”면서 “공학인증교육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김현수(기계공학과 3)씨는 “공학인증 수료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기업의 폭이 좁다”며 “학생들은 굳이 공학인증을 받지 않아도 개인의 노력으로 만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또 “매 학기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불만이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평가인원, 예산 등의 한계로 서류심사를 주로 실시한다. 학생들은 인증을 위해 증빙자료, 시험지 등의 자료를 공인원에 제출해야한다. 개개인의 활동과 경험을 기록한 포트폴리오 또한 첨부해야한다.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맞춰 시간표가 정해지므로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는 불상사도 일어난다. 신입생들은 별도의 공지 없이 자연스레 공학인증 시간표를 편성받는다.

많은 심화 수업,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들을 공부해야하니 시간낭비가 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중에는 전공 학점이 부족해 학생들의 졸업이 늦어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공학인증을 포기하고 있다. 작년 공학인증을 수료한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은 단 1명이다. 또 공학인증교육을 위해서 이에 따른 교직원들을 늘려야 하는데 지원을 못받고 있다. 백승규 기자

제주대 ‘제9회 제주포럼 2014’ 참가

5월 28일부터 열려

평화연구소·GTU 등 참가

제주대 학생들이 5월 28일부터 3일간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진행된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4’에 참가했다.

제주평화연구원(원장 문태영)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설계(Designing New Asia)’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아시아의 비전을 탐색했다.

제주대는 제주포럼에서 평화연구소 주관 세션, 글로벌교원양성자점대학(GTU) 사업단 주관 세션, 차세대 지도자 교류회 등에 참여했다.

평화연구소는 28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세션을 열었다. 허항진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30일 표선면 해비치호텔에서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글로벌 영리인들의 도전과 협력’을 주제로 한·미·중·일 4개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차세대 지도자 교류회를 가졌다.

“역사와 영토 문제 등 동아시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은 역사 문제의 재인식과 공생적 국익 추구의 소중함을 심는 대학교육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GTU사업단은 ‘글로벌 교육과 제주’를 주제로 글로벌 교사 양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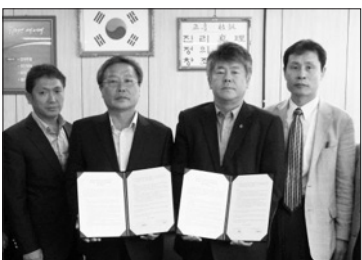
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세션을 진행했다.

마지막 날인 30일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글로벌 영리인들의 도전과 협력’을 주제로 한·미·중·일 4개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발표·토론하는 차세대 지도자 교류회가 이뤄졌다. 박소연 기자

사범대학-제일고 실험실·실습 협력

사범대학(학장 강동식 과학교육과 교수)은 지난달 29일 제주제일고등학교(교장 윤양섭)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범대학 학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강동식 학장과 윤양섭 교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사범대학은 전문교과와 과학융합에 관한 특별강연에 대한 교수와 강사를 지원하고 실험실을 개방해 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일고에 지원할



계획이다. 제일고는 사범대 학생들에게 현장교육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지민 기자

2014 제주어 말하기대회

김지영·이은요 학생 대상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주최한 ‘2014 제주어 말하기대회’에서 김지영·이은요(이상 송당초등학교 5)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개교 62돌을 기념해 지난달 31일 인문대학 2호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도내 초·중·고 학생 16개팀 29명이 참가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상=김지영, 이은요(송당초 5) △금상=박예인(애월초 4), 강희원(애월초 2) △은상=김현진(제주중앙초 2), 양수빈, 김민정(이상 창천초 4), 김민정(한마음초 6), 송은현(한마음초 5) △지도교사상=배현경(송당초 교사)

한편 대회에서는 민요패 소리앗 변항자씨의 지도로 관객들과 함께하는 제주민요 ‘이여도사나’ 배우기가 진행됐다. 유주연 기자

그린캠퍼스패트를 발대식

친환경 캠퍼스 위해 활동

친환경 캠퍼스로 만들기 위한 그린캠퍼스패트roller이 5일 출범한다. 그린캠퍼스사업단(단장 김상규 환경공학과 교수)은 활동자를 선정해 빈 강의실 불끄기, 수돗물 잠그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의 캠퍼스 에너지 절약활동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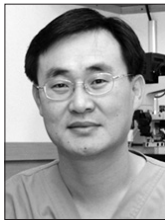
발대식은 사업단 소개와 활동내용 안내, 그린캠퍼스 활성화 모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하윤 기자

박세필 줄기세포 연구팀

우장춘 프로젝트 과제 선정

줄기세포연구센터 박세필 교수팀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우장춘프로젝트’ 연구과제 중간평가에서 연속과제로 선정돼 향후 3년 동안 총 36억원의 추가연구비를 받게 됐다.

줄기세포연구팀은 2012년을 시작으로 2년 동안 ‘알츠하이머 질환모델 패지개발과 후성 유전체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난치성 질환인 치매 관련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백승규 기자



국제교류본부 ISS 운영

6월 30일부터 3주간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 행정학과 교수)가 6월 30일부터 3주간 국제여름학교(International Summer School)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여름학교를 통해 제주대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대학 전공수업을 받는 기회를 갖는다. 이번 국제여름학교에서는 광영식(멜라웨어주립대 경영학과) 교수의 ‘재무관리’, 이정(리처드스탁튼 칼리지 컴퓨터교육과) 교수의 ‘글로벌학습을 위한 디지털스토리텔링 강좌’를 들을 수 있다. 강좌가 계절 학기로 운영되면서 수강자에 대해선 학점이 인정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은 각 초청대학에 학비를 면제받고 교류학생으로 갈 수 있다. 강영훈 본부장은 “외국대학의 전공과목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서윤 기자

융합디자인대학 육성사업단

산학프로젝트 결과보고회 개최

융합형디자인대학 육성사업단(단장 문영만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교수)은 지난달 30일 공과대학 3호관 강당에서 녹색관광융합 산학프로젝트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핵심디자인인력양성 사업을 추진 중인 융합형디자인대학 육성사업단은 이날 연계전공을 신청한 학생들의 한 학기 동안 도내의 산업체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선보였다. 김해건 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4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여, 제34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4년 6월 23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5. 발표 : 제주대신문 919호(2014년 7월 9일(수)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2014학년도 하기에절학기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수강생 모집안내

1. 수강신청 원서 접수 및 등록기간

2014. 6. 2 (월) ~ 6. 20 (금)

가. 인터넷 접수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psg.jejunu.ac.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나. 방문접수(토, 일요일 제외)

- 시간 : 09:00 ~ 18:00

- 장소 : 평생교육원 행정실

다. 전화접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휴대폰), 수강희망 강좌 등을 접수

2. 교육기간

2014. 7. 1 (화) ~ 8. 31 (일) 8주

3. 학습비 납부 방법

▶ 가상계좌에 의한 수강료 납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 1일 후 가상계좌번호 부여 →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수강료 납부 (예금주 : 수강생 본인)

▶ 납부방식 :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대학 승인코드 954871) 이용 납부

4. 선발방법

원서접수 후 등록(학습비 입금) 순으로 선발함

5. 교육과정 등 참고사항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psg.jejunu.ac.kr) 참조

6.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행정실 ☎(064)754-2704-5로 문의 바람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시론



김경락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충격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자

해양경찰 조직이 없어진다고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해양산업경찰학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해양경찰의 수사와 정보업무는 경찰청으로, 해양경비, 구조, 구난 등의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5월 29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이번 주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 조직의 운명은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특히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이미 2010년에 해양산업공학과에서 해양산업경찰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돼 2010년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은 오로지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해양산업경찰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직업적 매력에 힘입어 해양산업경찰학과는 학과명이 변경되기 이전보다 학과명이 변경된 이후 입학생들의 입학점수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 2010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도 학과명이 해양산업경찰학과로 바뀌면서 거의 대부분 학과소속이 변경됐고, 그 학생들도 대부분 인생의 진로를 해양경찰로 정한 상황이다. 이 학생들에게 지금까지의 인생의 목표였던 해양경찰 조직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사실은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나큰 충격일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충격에서 잠시만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닥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이 해양경찰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결코 좋지 않은 상황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현재 해양경찰 조직 중 경찰청으로 이관하겠다는 수사와 정보업무 담당자는 해양경찰 전체 인원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해양경찰 조직 중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는 해양경비, 구조, 구난 등의 업무 담당자는 해양경찰 전체 인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해양경찰 조직은 10%만 경찰청으로, 90%는 국가안전처로 그대로 옮겨 간다는 얘기다. 최소한 현재의 해양경찰 조직의 90%에 해당하는 인원만큼을 국가안전처에서 계속 유지 및 채용하게 될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해양경비, 구조, 구난 등의 업무를 해양경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가안전처 소속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다. 해양경찰 조직이 없어진다고 해서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내에서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 다만 그 일을 하는 주체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필자가 속해 있는 학과의 학과명도 또다시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의 해양경찰학과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학과명칭은 해양안전(관리)학과이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취지는 해양경찰의 방대한 업무를 분배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좀 더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지금까지 해양경찰이 수행해오던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경찰청에 속하게 되든 국가안전처에 속하게 되든 상관없이, 해양과 선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인들인 해양산업경찰학과 출신들이 그 분야에 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 질 것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는 해양과 선박에 대한 지식이 전문한 사람들이 해양경찰이 수행해오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관련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문은 확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해양산업경찰학과 학생들은 졸업시까지 대부분 해양과 선박에 관한 전공수업을 수강하며, 거의 대학기를 근해실습부터 원양실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과 선박에 관해 익히고 있다. 해양경찰이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해양과 선박을 잘 아는 전문인력이라면 지금과 같이 해양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관의 업무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불이 나면 불을 끄던 그 분들의 존재가 없어지는가? 이제부터 불이 나면 자기 스스로 불을 꺼야 한단 말인가? 이 말이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제주 아버지의 거룩한 일생

동문칼럼



좌혜경
국어국문학과 80학번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는 평소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해서 문학평론가가 되려고 국문학의 길을 선택했다. 그런 과정에 제주대학교와 인연을 맺었고, 더욱이 남편과 딸도 동문이어서 우리는 ‘제주대 가족’인 셈이다.

육지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제주로 돌아온 뒤, 모교에서 강사 생활을 15년간 역임했다. 돌아보면 참으로 기나긴 세월동안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다시 지면을 통해 후배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됨이 아니던가.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민족주의적 정신이 짙은 민속학으로 점차 그 관심의 폭을 넓혀가게 됐다. 제주민요·해녀의 삶 등 주로 제주의 전통문화가 하나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내가 근무하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학 아카이브를 새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 나의 몫이 됐다. 수집 자료 가운데 다행히 ‘제주 아버지의 회고 기록’이 담긴 그림 43점을 기증 받았다. 화제(畵題)는 주로 천자문 배우는 시골 소년의 하루일상으로부터, 일제강점기의 소년시절, 8·15의 기쁨, 4·3사건의 발발과 진행 등을 다루고 있다. 처음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마침내 ‘제주 아버지의 거룩한 일생’이 그림으로 완성된 것이다.

문득 올해 여든 다섯 해를 사신 내 아버지 삶을 떠올리게 됐다. 아버님은 한때 병원에서 의사직의 생활을 하셨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시며 저서 몇冊을 짓고 농사지킴이었다. 장녀였던 나는 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돌아보면 호아등불 아래서 글과 셈을 가르치시던 아버님이 화를 내시거라도 하면 이내 눈물로 뒤통백이 되어 글자가 한 자도 보이지 않던 잊지 못할 추억이 뇌리를 스친다. 오마적 어느 날 아버지는 핸드폰을 바꾸시겠다고 하셔서 스마트폰을 추천해드렸다. 일순으로 다져진 몽그러진 손이기에 그 터치가 자유롭지 않았다. 그래서 부산에 사는 여동생으로부터도 발중에 올려댄 전화 소리에 대한 불만 제제를 받았어도 정작 아버님께는 이런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지금은 문자도 잘 보내시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을 정도로 스마트폰 활용이 자유스러운 편이다. 그런데 이에 자신감을 얻어 이제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

“아버님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느새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구입해오셨다. 그런데 화살표 이동 확인 등의 사용법이 어려웠고 손의 터치가 쉽지만은 않았던 듯했다. 그런데 배우시려는 열의와 의지는 초등학교 소년처럼 대단했다.

어느 날 노트북 사용법을 가르치다가 그만 아버님께 실언을 하고 말았다. “아버님, 노트북 사용일랑 이제 접으시고, 그걸 손주에게 물려주시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으신 아버님께서 직접 화를 내어 말씀하심을 접고,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내게 보내셨다. “다시는 노트북에 대해 신경 쓰지 마라, 마라.” 그 메시지를 받은 후 눈앞이 캄캄하고 충격적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찾아갔으나 일부러 나를 피하시려는 듯 만나주지 않으셨다.

이때 문득 학생들에게 『명심보감』을 강의하면서 <활반가(八反歌)>의 제4장을 소개하던 내용이 불현듯 생각났다.

“그대가 새벽에 저자로 들어가서 떡을 사는 것을 보는데, 부모에게 드린다는 것은 별로 들지 못하고 흔히 자식들에게 준다는 말을 들었다. 아버이는 아직 먹지 아니하였는데, 자식이 먼저 배부르니 자식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 비하지 못하느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떡살 돈을 많이 내서 아버이를 봉양하라.”

딸들의 권유로 말미암아 한 분은 일생을 그림으로 남기셨고, 내 아버지는 새로 노트북을 사서 배움의 의지를 불태우려 하셨다. 새삼 제주 아버님들의 웅기와 삶의 자세에 웃음을 여미게 됐다. “아버지 건강하시고, 오래사시고 용서하세요.”

적극적 참여가 세상 바르게 이끈다

독자기고



박시몬
정치외교학과 3

사회과학대학 2층에는 학생들이 드나들며 공부할 수 있는 구라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면서 하루는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오래된 신문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사에서는 남양동 대공분실(對共分室)의 살인고문을 견뎌내고 군부독재에 저항했던故김근태 전 장관의 별세를 다루고 있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그는 “참여하는 사람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말은 나의 뇌리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과거에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가 독재와 싸웠던 학생들의 ‘참여’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소중한 변화를 가져왔다. 민주화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과거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어떤 나라일까. 굴지의 세계적 기업의 유령세로는 최상이지만 투표율은 OECD국가 중 최하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안팎의 괴리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이다. 누군가는 현재의 우리나라를 또 하나의 세월호로 비유한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선원의 말에 당연하게 복종했던 학생들이 생각한다. 이러한 무의식의 복종

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는 과거 유교사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성리학이 권력관계의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피치자에게는 주권개념조차 없었고 치자에 대한 피치자의 복종과 순응의 이데올로기가 강조됐다.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지배계층이 민중의 무의식 가운데 대학서열, 학벌주의, 영어 등에 대한 열등 의식을 심어놓음과 동시에 왜곡된 문화심리구조를 영속시키고 있다. 누군가는 복종을 자연스레 강요당하는 ‘갑·을 문화’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러한 갑에 대한 을의 복종이 당연된 사실은 문화는 우리의 무의식에 내재해 있다. 갑의 순종과 복종의 요구가 만연한 사회에서 을이 할 수 있던 것은 과거의 대학생들이 군부세력에 맞섰던 ‘참여’일 것이다.

우리는 은연중에 침묵당하고 있는 권리를 인식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더 이상 복종과 순종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인 것이다. 동시에 민주화를 목 놓아 부르며 거리로 나갔던 대학생들을 기억하자. 다가를 6·4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귀중한 표를 감사히 행사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해야 한다. 민중의 참여가 세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미 지명한 진리임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박시기
경영학과 3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티끌 모아 티끌’과 같은 개그맨 박명수 특유의 돌직구들을 모아 놓은 일명 <박명수 어록>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이는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 할 만큼 현실을 잔혹하게 투영한 어록이다. 하지만 나는 뻔하다 뻔한 명언들보다 박명수의 현실적인 돌직구가 우리에게 더 공감을 주었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해학이 돋보였기 때문에 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어록에 수록된 말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그의 말이 있다.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무한도전에서 장난스레 던진 그의 한 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1년이 꽤가는 지금까지도 퍼지고 있다. ‘너 꿈이 뭐니?’, ‘취업은 어디로 하실 생각이예요?’ 이와 같은 말을 안 들어 본 사람이 없을까. 인터넷을 하다 보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뭘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꿈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꿈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고 나온다. ‘희망이나 이상’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내가 다니고 싶은 직장, 되고 싶은 직업, 살면서 이루고 싶은 어떤 것.

꿈이란 누구나 다 가져야 하는 것일까. 꿈을 가지라고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것일까. 이 사회는 꿈이 없는 사람들을 한심한 사람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꼭 큰 목표를 세우라고 한다. 나도 찾아 보고 싶다. 그런데 찾는 법을 모르겠다. 초, 중, 고 12년 동안 학교, 학원을 오가며 입시를 위한 공부만을 시켜놓고선 대학에 가지마자 갑자기 스스로 너의 진로를 찾아보라 한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꿈을 찾을 것인가. 게다가 왜 공무원이나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는 꿈을 무시하는 것일까. 꿈을 따르기로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일 뿐이다. 따라서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유훼자 적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존재 한다는 것이다.

꿈을 가지라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꿈이란 것이 없으면 사는데 지장이 있는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고스펙 쌓기에만 전념하는 사회를 만든것은 당신들이다. 의견에 이의는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꿈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uu.ac.kr

도민과 직장인들에게

정보화 자력증 교육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원장 이규봉)이 도민과 직장인들의 자력증 취득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6월 한달동안 도민 정보화 자력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본 교육과정은 5월 26일부터 4주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일러스트과정, ITQ한글(정보기술자격과정), ITQ엑셀(정보기술자격과정) 등 총 3개 과정이 운영된다.

본 과정 수강생들은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 동안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70명의 도민 및 직장인들이 교육 신청하여 수강생으로 확정됐다. 지난 4월에도 UTQ(정보기술소양자격) 자격과정을 운영 하였으며 교육 받은 수강생중 10명이 UTQ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9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도민과 직장인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버 교육 과정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www.edu.jeu.kr)내 알림마당 수강생 모집안내 139번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평생교육(064-710-7433)으로 하면 된다.

6·4 지방선거로 생긴 갈등

도민화합시책으로 해소

제주도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조기 해소하고 안정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도민화합시책과 현장 행정시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거기간 동안 흐트러진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각종 행사를 도민 화합 행사로 개최하는 등 지역화합시책에 나선다. 이어 일정한 법집행을 통한 기초생활질서를 확립하고 취약지 안전점검과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안정된 도민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진행한다. 먼저 환경정비와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투표 다음날인 5일중에 선거 관련 현수막, 벽보 등 각종 홍보물을 일제히 제거한다. 이어 주책가, 시가지, 다중집합시설 등도 도민화합 행사로 치러지도록 추진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6·4지방선거로 흐트러진 지역민심과 사회분위기를 빠른 시일내에 일신해서 도민화합과 지역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칸호아제주초교생

제주도청 방문해 상호교류



베트남 칸호아제주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제주도 자연경관 영상 시청 등 환영 분위기 속에 제주도 소개를 받았다. 이날 방문은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지난 2011년도 해외 나눔사업의 성과로 2012년 2월 29일 칸호아제주초등학교가 준공, 제주 한라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상호 교류를 약속함에 따라 실시됐다.

2014년도 자매교류 사업으로 교직원 및 학생 등 15명이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를 방문함에 따라 정순일 여성가족정책과장이 제주관광홍보 영상물 시청, 환영사와 선물 증정 및 기념촬영 등으로 맞았다. 정순일 여성가족정책과장은 “이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간 우호증진과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터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현재 공사중인 김만덕기념관이 완성되면 내년에 방문하는 학생들은 더욱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27회 정보문화 달 맞아

청소년·대학생 위한 행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7회 정보문화의 달인 6월을 맞아 건전한 정보문화 분위기를 확산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행사로 제주IT협회 주관 ‘2014 제주 3.0 ICT·정보문화 페스티벌’이 오는 14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물로켓·에어로켓 발사대회 제주지역대 표선발, 스피드스택스 대회, 휴노보트 대회 등이 준비됐다. 부대행사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전, 제주IT기업 및 LINC사업단 캡스톤디자인 우수작 전시, ICT 어울림한마당, 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의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행사참가자에게 박물관 입장료를 50%할인해 준다. 학생들을 위한 행사도 개최된다. 청소년·대학생에게 ICT 비전 설명을 목적으로 ‘ICT로 열아가는 청소년 드림 토크 콘서트’가 25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열린다. 강연으로 양준철 은오프릭스 대표이사 등의 ‘꿈의 비밀지도를 따라’와 양영경 해럴드 경제기자의 ‘내 꿈을 펼치는 7가지 방법’ 등이 준비됐다. 이외에도 학생 및 강연자 등과 진로정보, 성공사례 등 실현방법을 조언해주기 위한 토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본 행사들이 다수 집합행사를 함 감안해 안전을 최우선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

제주 해녀들의 삶 탐재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제주학연구센터는 한림을 한수리 어촌계 흥청가 계장이 소장한 사진 150점을 제주학 아카이브에 탑재하여 ‘제주바다지킴이’로서의 해녀들의 삶을 대내외로 알릴 예정이다.

사진은 고무뱃을 입은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제주해녀의 일상적 삶을 통해 역사 속에 각인된 제주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공존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내용은 해녀공동체가 보여주는 생산과 판매 활동, 집단경제를 통한 지역사회봉사, 매달 정기적으로 행하는 어장관리, 자원관리, ‘해신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해녀문화와 관련된된다.

특히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보전을 위하여 전복종패를 바다에 방사하는 모습 등 기존의 전통해녀와는 다른 현재 해녀들의 활동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해녀들의 삶의 문화를 후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자료는 비록 현재 해녀들의 일상 그 자체이지만, 역사 속에서 제주여성들의 강인함을 전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앞으로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관련 자료를 기증받아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 높은 귀중한 보고(寶庫)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환경의 날 기념

‘제2회 제주 환경사진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제2회 제주 환경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환경사진협회 제주도본부회원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2012년에 출범한 한국환경사진협회 제주도본부(본부장 이치우)는 제주 천혜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진작가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사진 전시회 및 사진집을 발간하고, 다른 환경단체들과 함께 환경 정화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치우 본부장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환경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며 “전시회를 계기로 제주의 자연과 환경 보전에 한국환경사진협회 제주특별자치도 본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정리=강수진 기자

봉사만큼 좋은 공부가 어디있겠어요?

8년간 호스피스 봉사하는 간호학과 학생들

수학과 학생들은 보육원에서 수학멘토 나서

중국 유학생은 아동보호시설서 외국어 봉사

대학에는 수많은 봉사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은 특별한 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소속 학과 특성을 반영하거나 봉사단들을 결성해 재능기부 봉사를 펼치고 있다. 간호대학 ‘엔젤인너스’, 수학과 ‘무한수열’ 중국 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민들레 봉사단’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가 된 모습을 보였다. 엔젤인너스 봉사단은 2011년부터 3년간 제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삼성생명과 대학사회봉사협회의 ‘사람, 사랑 봉사단’으로 선정되는 등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다.

◇간호대학 호스피스 봉사단 ‘엔젤인너스’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다. 환자들의 여생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봉사행위와는 다른, 숭고한 의미를 담은 봉사다. 간호대학의 ‘엔젤인너스’ 호스피스 봉사단은 2006년 처음으로 송호정, 최수영 간호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3학년 양선희, 김수연, 김현형 학생이 뜻을 모아 결성됐다. 송호정 교수는 “학생들이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미래의 간호사로서 직업 의식과 봉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처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봉사단은 매주 토요일 제주대학교병원과 성이시돌복지위원회의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발마사지부터 식사 보조, 위생 상태를 점검하며 때로는 말벗이 돼 주기도 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다. 타인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으며 감정의 기복이 무척이나 심하다. 하지만 이런 환자들도 매주 찾아오는 봉사단원들을 보면 어린이아처럼 환하게 웃는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다 나은 것 같네’ 하고 말하거나 음식을 권하는 봉사단이 마치 내 자식 같으며 영달이를 토닥이는 행동은 봉사단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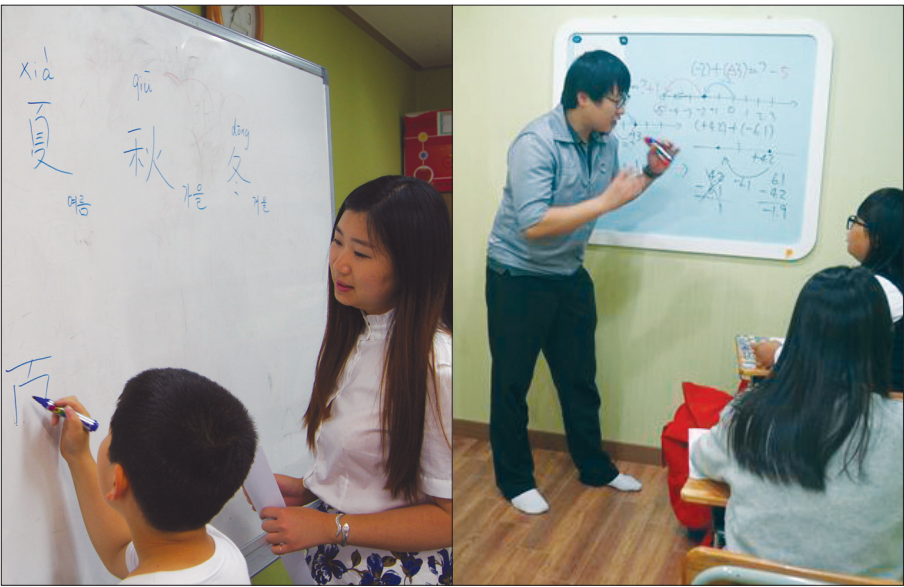
허연주(간호학과 2)씨는 “처음 봉사를 갔을 때가 힘들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라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면서 “하지만 환자분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이란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환자분들이 마지막까지 행복한 마음을 갖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사단원들은 최근 성이시돌복지위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 환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봉사정신을 넘어 서로가 하나

◇수학과 학생들의 ‘무한수열’ 봉사단

최근의 봉사활동은 본질적 의미가 퇴색했다는 말을 듣는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봉사가 아닌, 이름만 거창하게 내세우고 결국 자신의 스펙에 한 글자라도 더 넣기 위해 억지로 행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없이 순수한 열정만으로 봉사를 행하는 봉사단도 존재한다. 무한수열은 한없이 계속되는 수열을 뜻한다. 그리고 특정 값을 향해 무한으로 달려간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열정을 무한하게 쏟아 부는 이들이 있다. 바로 수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무한수열’ 봉사단(대표 김형주 수학과 4)이다. “무한한 수학과 열정”이라는 말을 줄여 만든 봉사단은 매주 2차례 외도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준다. 방은 숙 수학과 교수의 지도로 시작된 수학교육은 어느덧 수학과 학생들과 아이들을 하나의 수열로 만들었다. 처음엔 수학에 흥미없어 심통부리던 아이들도 어느덧 자신있게 손을 번쩍 들면서 질문에 답하게 됐다. 선생님들이 된 학생들도 더욱 자신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방은숙 교수는 “비록 학생들이 유명 강사는 아니지만 순수한 봉사정신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며 “봉사단이 수학과와 정신을 널리 알려 단어 그대로 무한히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유학생들의 ‘민들레 봉사단’

“자 따라해 볼까요? Chun, Xia, Qiu, Dong! 이 낱말들은 사계절을 나타내는 중국어예요.” 매주 목요일 아라중합사회복지관(관장 조정태)의 아동들은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들을 기다린다. 맛있는 과자보다 더욱 기대되는 재밌는 중국어 수업이 있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은 큰 소리로 인사한다. “니하오!” 엄격한 얼굴을 한 나이든 선생님이 아닌, 자상한 미소를 띤 여학생들이 들어선다. 선생님들은 다른 아님 중국인 유학생



은열(일어일문학과 2)씨가 아라중합사회복지관의 아동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있다(위 왼쪽). 김형주(수학과 4)씨가 학생들에게 수학교육을 하고 있다(위 오른쪽). 송지현(간호학과 2)씨와 최지은(간호학과 3)씨가 성이시돌복지위원 환자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다(아래).

들이다. ‘민들레 봉사단(대표 송초 국어국문학과 4)’의 이름으로 시작한 중국어 수업은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도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됐다. 제주대 중국인 유학생회장 송초(국어국문학과 4)씨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봉사단은 총 7명의 학생들이 뜻을 모아 활동하고 있다. 송초(국어국문학과 4)씨는 “평소 봉사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에 유학을 와서 내가 뭘 나눌 수 있을지 고민했다”면서 “요즘 한국 학생들이 중국어 배우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듣게 돼서 동료들과 함께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봉사단의 시작은 무척이나 험난했다. 재능기부라는 좋은 취지를 담은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나중에 중국어 학원을 만들어 독점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따랐다. 지친 이들에게 아라중합사회복지관이 손을 내밀었다. 조정태 관장은 이들의 소문을 듣고 복지관의 아동들에게 중국어 교육

을 부탁했다. 그렇게 민들레 봉사단은 첫 씨앗을 날려 보낼 수 있었다. 처음으로 수업을 맡게 된 날, 봉사단원들은 무척이나 긴장했다. 은열(일어일문학과 2)씨는 “혹시나 아이들이 낯설어 하지는 않을까. 서툰 내 한국어 때문에 수업 진행하기가 어렵진 않을까. 무척이나 고민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아이들은 천사였다. 첫 만남부터 우리는 마치 10년 동안 친구였던 것처럼 금세 신나서 떠들었다”고 말했다. 봉사단의 중국어 교육은 입소문을 타고 어느덧 학부모들도 즐겨 듣게 됐다. 그 중에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거액의 과외를 부탁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아낌없이 기부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돈을 바라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그 시간이 무척 즐거웠기 때문이다. 봉사단은 이제 장기적인 자신들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어린 아동들의 교육을 넘어, 성인들과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중국어 교육을 해주고자 한다. 강수빈 기자

아라초대석 <6> 하민주 제주잡지 <iin> 편집장

제주만의 ‘아이템’ 찾기에 노력

제주에는 누군가에게는 일상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여행의 추억이다. 여행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그들이 만들어 낸 리얼 제주 잡지 <iin>:[인]의 편집장 하민주(35)씨는 제주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제주를 여행하고 있다. 서울에서 출판사 편집장을 하던 하민주씨는 제주도가 좋아 제주도로 이주했다. 하민주씨의 동료들도 비슷한 시기에 제주로 이주했는데 각자 기자, 포토그래퍼, 마케터로 일을 했었다.

예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그들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편하게 오고간 얘기들을 잡지 속의 콘텐츠로 만들기로 했다. 제주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기에 여행으로 만난 제주의 모습이 아닌 살아가면서 만난 ‘진짜’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다. 잡지의 이름인 <iin>은 ‘I’m in island. Now!’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I를 길게 늘어뜨려 제주도 사투리로 ‘있다’라는 뜻인 ‘인’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섬에 있어”라는 말을 ‘인’이라는 한 단어로 내용을 함축해놓은 것이다.

“제주로 이주한 지는 4~5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생업이 있어 잡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만 있고 하지는 못했죠.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동안의 준비기간 끝에 지난 4월 봄에 빠끔 고개를 내미는 새싹처럼 그들의 잡지도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으로는 알 수 없는 봄의 제주의 핫이슈인 ‘고사리’와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오일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봄호 잡지 커버이기도 한 ‘고사리’는 도민들과 도민이 아닌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샀다.

“우선 기간이지기 때문에 제주만의 ‘봄’을 담고자 했어요. 제주도는 봄이 되면 무엇보다도 ‘고사리’로 들쭉들쭉 하더라구요. 제주로 여행을 다녔을 때에는 몰랐죠. 봄에는 유채꽃이나 벚꽃이 가장 핫이슈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주에서 살아보니 제주 고사리에 대한 매력을 알

게 됐어요. 또한 ‘고사리’는 식품뿐만 아니라 ‘식물’로써 접근할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잡지는 이번 호에 ‘고사리 채집 완벽 준비물’을 소개한다. 시중에 많은 여행잡지나 매거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반짝이는 ‘아이템’이다.

출판시장의 침체로 <iin>도 종이잡지로 출간하는 것에 대해 주변의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잡지 <iin>은 되려 우려했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도내 판매처에서는 입고와 동시에 품절이 돼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소장하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었다던 그들의 꿈과 조금은 가까워졌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일단 재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재미도 있고 소장욕구가 생기는 책을 만들고 싶었죠. 아무래도 지금 제주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심사에 조금 더 보탬이 된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제주도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생선되는 공간’이다. 어쩌면 오히려 오리지널 제주도민들보다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공간이다. 물론 여행 때의 제주와는 생활로서의 제주로 변했지만 그들은 여행같은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잡지 <iin>도 살아보는 여행, 생활과 여행의 경계선을 두지 않는 삶을 추구한다.

“대부분 도내 잡지가 1회로 그친 경우가 많아요. 아마 시작하긴 쉬워도 꾸준히 끌고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도 꾸준히 발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소수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다양한 콘텐츠를 꾸리고 싶어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제주만의 봄을 가득 담았던 잡지 <iin>은 이제 여름의 제주를 담아 여름의 문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유주연 기자



도민과 제주 이주민, 여행객을 위한 잡지 <iin> 창간호(왼쪽)와 하민주 편집장(오른쪽).

좋은 정책·공약 투표로 응원하세요

"현명한 유권자는
정책과 공약을 먼저 봅니다"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월 4일, 정책부터 살펴보고 현명하게 투표하세요!

정책·공약 확인방법

인쇄물 정당의 정책공약집, 후보자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방송 정당의 정책토론회, 후보자 토론회, 언론기관 관련 보도	인터넷 중앙선거위 홈페이지, 정당·후보자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정책·공약알리미)
--	---	--

※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및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에는 인쇄물, 방송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집중 홍보하여 정책중심의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고장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정책·공약 바로 알고 꼭 투표하세요.

함께 만드는 정책선거,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를 방문해 주세요.

